

내-외적 자기개념, 행복조건,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의 관계: 초·중·고·대학생 비교*

이 중 한 박 은 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동양문화권의 자기(self)에 대한 인식과 행복조건에 대한 인식이 서구인에 비해 외적인 요소들의 비중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인식이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또한 사회비교 정도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려는 목적에서 초등학교, 중, 고, 대학생 남녀 95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자기개념에서 내적(內的) 단서의 비중이 높았으나, 고등학교는 외적(外的) 단서의 비중이 높았고, 대학생은 내-외 단서의 비중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행복조건에 대해서도 가족의 화목, 마음의 평화 같은 내적조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학벌, 직업, 돈 같은 외적조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생이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사회비교 정도는 초,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와 대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외적 자기개념을 형성하였고, 자기존중감은 낮았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네 집단 중 사회비교 경향이 가장 높고 외적 자기개념을 형성하며 행복에 대해서도 외적 조건들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경쟁 지향적 환경에서 성장함에 따라 점차 외적 특성 중심의 자기개념과 행복에 대한 사고 경향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내-외적 자기개념, 사회비교, 자기존중감, 행복의 조건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박은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E-mail : eunap@daegu.ac.kr

최근 발표된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26개국 중 꼴찌로, 자기 삶에 만족한다는 긍정율이 5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 어린이들의 경우 자기 삶에 만족한다는 긍정율이 94.2%로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조선일보, 2010, 5, 5).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류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것과 같이 삶의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박정현과 서은국(2005)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응답자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돈이나 집안배경, 외모 같은 사람의 외적인 요소를 자신감이나 마음의 평화 같은 내적인 요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행복의 조건으로 외적인 요소들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관(self-view) 또한 개인의 행동이나 말투, 표정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특성 중심이라는 점이다. 즉, 개인의 외적 특성들이 그 사람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외적 자기개념을 가질수록 행복의 조건 또한 사회적 지위, 직업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자기개념은 행복조건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개념, 즉, 자신에 대한 인식은 성장함에 따라서 변화한다. 아동 초기에는 신체적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인식하지만, 성장함에 따라서 활동적 자기, 사회적 자기, 그리고 심리적 자기로 지배적인 자기개념이 변화한다

(Damon & Hart, 1982). 그런데, 자기개념의 비중이 변화하는 양상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과 달리 사회적 자기에서 심리적 자기로의 자기개념상의 비중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Damon & Hart, 1988). 즉, 자기를 인식하는 방식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자기(social self)란 개인의 특성 중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 공적인 자기(public self)를 의미하므로 외적 단서 중심의 자기개념을 의미하고, 심리적 자기(psychological self)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기(private self)이므로 내적단서 중심의 자기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박정현과 서은국(2005)의 연구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외적 단서와 내적 단서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고려한다는 결과는 서구인들이 내적 단서를 훨씬 더 비중있게 고려한다는 Anderson과 Ross(1984)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자기개념에서 외적 단서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는 동양문화권의 개인들이 성인이 되어도 심리적 자기보다 사회적 자기의 비중이 크다는 Damon과 Hart(1988)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해석된다.

정리하면 아동기에는 신체적, 물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요소 중심의 자기개념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식과 개인적이고 사적인 존재로서의 인식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구인들과 달리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심리적 자기보다 사회적 자기, 즉, 타인에게 보이는 외적인 단서 중심의 자기개념이 서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개념에서 사회적 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자기인식 방식의 특징으로서(Damon & Hart, 1988),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기개념의 주된 측면이 변화하는 양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의 중요성 인식 정도 또한 성장함에 따라 커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외적인, 사회적 단서 중심의 자기개념과 외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은 언제 형성되는 것일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주변 친구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쟁지향적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인식, 자기를 인식하는 방식도 사회적 지위나 직업 같은 개인을 구성하는 외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사회비교 현상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기존중감과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Lyubormirsky & Ross, 1997; White & Lehman, 2003; 2005). 따라서 주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과 행복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사회비교 정도는 좋은 성적을 성취하고 주변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입시 환경은 끊임없이 자신을 주변 동료와 실질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비교하는 상황에 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자기존중감과 행복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아동기에 비해 청

소년기에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저하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Rosenberg, 1979; 김아영, 2008; 황유진, 2010 등). 그런데 이런 결과를 사회비교 관련 연구들과 관련지어 잘 살펴보면, 사회비교의 대상과 비교의 방향이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과 상향비교를 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하향비교가 일어나면 자기존중감이 향상되고, 또한 서열 인식이 쉽게 일어나는 수직 차원의 대상(예: 성적)과 비교하면 자기존중감이 저하되지만, 서열 평가가 어려운 수평 차원의 대상(예: 개인의 취향, 기호)에 대해 비교하면 자기존중감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Wheeler, 2000). 따라서 서열 매기기가 가능한 수직 차원에 대하여 상향비교를 많이 할수록 사회비교의 결과 자기존중감과 행복감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입시 위주의 경쟁 환경에 노출되므로 사회비교 정도는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개념 인식과 행복조건에 대한 인식, 사회비교 정도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령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하여 자기개념 인식에서 내-외 단서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고, 행복조건에 대한 인식은 연령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회비교 정도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강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내-외적 자기개념과 행복조건에 대한 중요도 인식,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권에 따른 자기개념 차이와 자기존중감

Nisbett(2003)은 사람의 ‘본질(essence)’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사람들의 지각과 사고 과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람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 양식의 단서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데, 하나는 비교적 쉽게 눈에 띄는 외적인 단서 즉 행동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직접 관찰이 어려운 내적인 단서, 즉 감정과 생각이다. 사람을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으로 구분할 때, 어떤 측면이 보다 더 사람의 본질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방식, 즉 ‘자기(self)’를 인식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자기인식의 방식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미국인들은 타인을 파악할 때 행동과 같은 외적인 단서보다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내적인 단서를 더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Anderson & Ross, 1984), 이렇게 내적 단서들을 인간의 주된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이지는 않다. Heuvel, Tellegen과 Koomen(1992)은 자기인식 방식에서의 문화 차이를 지적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서구사회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로 특징지어져서 사람을 상황에 독립적인 존재(distinct agent), 상황적 영향으로부터 자율적인 존재로 본다. 반면에 동양사회는 집단주의(collectivism)로 특징지어지며 사람에 대해서도 전체적 관점(holistic view)을 갖기 때문에 사람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개념화되고 사람의 행동 또한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서구 문화의 개인은 ‘심리적 자기(psychological self)’가 지배적이고 동양 문화의 개인은 ‘사회적 자기(social self)’가 지배적이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인간에 대한 개

념화 방식에서도 차이를 유발하여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사람을 상황에 무관한 존재, 맥락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추상적(abstract)인 특질들을 중심으로 초맥락적 규칙을 발견하려 한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개념화에 특질(traits) 같은 추상적 속성을 덜 사용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Cousin, 1989). 특히 극동 지역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가 속한 가까운 내집단과 연결시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역할 등 외적인 단서들을 중요한 자기개념(self-concept) 요소로 생각하는 반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독특성(성격, 취향)으로 구성되는 사적인 자기(private self)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Heine, 2001; 한규석, 2009).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인식 방식에서의 문화 차이는 발달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Damon과 Hart(1982)는 아동의 자기개념이 성장함에 따라서 신체적 자기, 물질적 자기에서 활동적 자기, 사회적 자기, 그리고 심리적 자기로 지배적인 자기개념이 변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후 연구에서는 자기인식 방식의 변화 양상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여, 집단주의 문화권의 아동에게서는 개인주의 문화권의 아동과 달리 사회적 자기에서 심리적 자기로의 비중 전환(shift)이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Damon & Hart, 1988). Heuvel, Tellegen과 Koomen(1992)은 동양 문화권과 서양문화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념의 발달적 양상이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는데, 개인주의 문화권(네덜란드) 아동들은 심리적 자기에

관한 언급이 더 많은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터키, 모로코) 어린이들은 사회적 자기에 관해 더 많이 진술하여 뚜렷한 문화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집단주의 문화권은 개인주의적 서구인에 비해 타인에게 비치는 사회적 자기(social self)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적인 자기(subjective self)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Suh, 2000). 따라서 동양인들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보다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호의적으로 평가받는가가 자기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며, 자신을 고양시키는(self-serving)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을 비판하는 정보(self-critical)에 민감하며 그것에 의해 자기존중감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Heine, 2001).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을 구성하는 외적 특성들, 예를 들면 외모, 사회적 지위, 재산, 학벌 등 서열적인 비교가 용이하고 타인에게 쉽게 관찰되는 사회적이고 외적인 단서들이 자기개념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런 외적이고 사회적인 요소에서의 성취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관련 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리학 분야에서도 행복에 대하여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등 행복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관해 본격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기 시작하였다(Diener, 1984; Diener & Lucas, 2000; Argyle, 2001 등).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수 이루어졌는데, 가족관계

와 자녀의 성장 및 성취(구재선, 김의철, 2006), 자기조절 및 화목한 가정(김의철, 박영신, 2004)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기도 했다(박영신, 김의철, 2006).

그런데, 행복의 지각은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중요하므로, 생애 단계에 따라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혹은 행복 요소에서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구재선과 김의철(2006)은 대학생과 기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행복 경험에 대하여 비교하였는데, 대학생들은 친구관계(31.6%), 휴식/여가(31.2%), 개인적 성취(9.6%), 가정의 화목(9.1%), 타인의 인정/관심(8.6%)의 순으로 행복 경험을 언급한 반면, 기혼자들은 가정의 화목(45.9%), 자녀의 성장/성취(14.6%), 개인적 성취(11.2%), 휴식/여가(8.2%)의 순으로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 또한, 행복 경험을 세대 간 비교해 보면 대학생들은 개인적 경험과 관계적 경험을 유사한 빈도로 언급한 반면, 기혼 성인들은 개인적 경험보다 관계적 경험을 더 많이 언급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인과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경숙과 정태연(2009)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요소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물질적 측면에서는 경제, 건강, 외모,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기만족, 정서적 안정, 긍정적 가치관, 자유, 독립성, 휴식과 여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족관계, 이성/동성친구 및 대인관계, 성적/진로에서의 성취, 사회적 인정을 중요한 요인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요인들이 행복을 결정하는 비중은 물질적 측면이 23.2%, 심리적 측면이 28.2%,

사회적 측면이 23.8%, 개인적 성취가 17.1%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10개 요인들을 삶의 만족감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개성의 인정, 가족관계, 심리적 여유, 성적, 경제력의 순서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약 43%를 설명했다. 즉 청소년의 행복 경험은 자신의 성격이나 끼, 개성을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화목한 가정/가족관계를 이루며,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를 느끼며 학업 성적이 만족스러운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생애 발달 시기에 따라 행복 요소의 중요도 및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세대를 불문하고 개인적 성취와 업적,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 정서 경험이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 및 행복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끊임없이 친구들과 경쟁하며 다른 친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생활한다. 실력이 좋은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 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상위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교육받기 때문인데,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개개인은 항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상황에 놓인다(하정희, 2006).

사회비교 이론을 처음 제안한 Festinger(1954)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려는 동기를 갖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으면 자신과 유사한 의견이나 능력을 지닌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사회비교 과정에 관한 여러 선행연

구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 관한 생각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뉜다. 즉, 지위나 우월성 같은 수직적(vertical) 차원과 친밀감이나 결속감 같은 수평적(horizontal) 차원에서 개념화된다. 개인이 언제 수직비교 혹은 수평비교를 하는가는 비교상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직비교를 하는가 혹은 수평비교를 하는가에 따라 다른 정서적 결과를 갖게 만든다. 예를 들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순위를 매기기 어려운 것 즉, 개인의 기호나 태도, 성격, 라이프 스타일 등에 관해 비교한다면(예, 나는 중국음식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중국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수평비교가 일어나게 되지만, 순위 평가가 쉬운 것, 즉 성적(GPA)이나 재산 등에 주의가 집중된다면 상대보다 자신이 열등한가 우월한가에 대해 생각하는 수직비교가 쉽게 일어난다. 수평비교는 자신감(self-confidence feelings)보다는 연대감(connected feelings)을 더 잘 느끼도록 하지만, 수직비교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결국 사회비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에 따라 자기(self)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평가하여 위치지우는 현상으로, 다른 개인차 변인들보다 자기존중감 같은 자기가치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든다(Wheeler, 2000).

Festinger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사회비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첫째, 사회비교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인지활동이지만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비교경험은 변하며, 어떤 비교대상(혹은 상황)과 자신을 비교하는가에 따라 비교의 결과(자기존중감이나 긍정적 정서경험)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Wood와 Lockwood(1999), Locke와 Nekich(2002) 등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제와 관계없이 상향비교

보다 하향비교를 많이 하고, Taylor 등(1995)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개인적인 기준을 자주 사용하며 사회비교는 그다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Taylor, Wayment와 Carrillo(1993)는 사람들은 하향비교를 함으로서 자기고양동기가 만족되고, 자기향상동기는 상향비교를 통해, 자기평가동기는 유사비교를 통해 만족됨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사회비교 연구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연구들은 비교대상이나 비교동기에 따른 사회비교의 심리적 결과를 보여준다(한덕웅, 1999; 장은영, 2009; Heine & Lehman, 1999; White & Lehman, 2005 등). 한덕웅과 장은영(2000)은 개인이 사회비교 시 추구하는 우세한 사회비교 목표에 따라 상향, 유사 및 하향 비교를 통해 경험하는 만족감은 다르며, 특히 과제의 성공/실패 결과에 따라 추구하는 사회비교 동기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 사회비교를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 결과가 다르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회비교를 하는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 사회비교 하는가에 따라서도 사회비교의 심리적 결과(정서 경험)는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비교는 일종의 개인적 성향으로서 얼마나 자주 사회비교 하는가의 정도는 비교대상이나 비교목표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질 혹은 성향이라는 관점이다. Gibbons과 Buunk(1999)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려는 개인적 성향을 '사회비교 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이라 정의하고, 개인이 사회비교 정보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고 수용적인지를 알아보는 사회비교 경향성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비교 경

향성이 높을수록 우울감, 부정적 정서경험이 높고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서, 장은영과 한덕웅(2002), 황혜진(2005), 한덕웅(2006) 등은 사회비교 경향이 높은 사람이 분노정서 경험이 높고 삶의 질 평가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사회비교를 개인의 성향적 특성으로 보고 사회비교의 결과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주로 우울감, 부적 정서경험 등 임상적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고 있는데(최윤희, 2003; Carver & Sheier, 1986 등), 이 연구들을 종합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삶의 질을 낮추는 등 행복한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비교에 대한 문화차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개인들은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보다 사회비교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상향비교가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과 대인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므로,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보다 사회비교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White와 Lehman(2005)은 유럽계 캐나다인과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비교하였는데,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고 특히 상향비교 정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Heine 등(2001)의 연구에서는 북미인들은 실패한 과제보다는 성공한 과제를 이후에 더 하고 싶어 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반대로 성공한 과제보다 실패한 과제를 이후에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시아계 혹은 일본인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로서, 어떤 과제에 실패하면 더욱 그 과제에 매달리고 자신이 우수할

때보다 저조할 때에 사회비교 행동빈도도 높아진다. 이런 현상에 대해 Heine 등(2001)과 White와 Lehman(2005)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향상동기가 더 잘 작동하는데, 그 이유는 집단주의 구성원들은 집단의 높은 기준, 목표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최근 장은영(2009)은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비교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비교하였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에 비해 사회비교 동기가 높고, 특히 자기향상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미국 대학생보다 한국 대학생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비교의 목표 동기 또한 차이가 있어서 한국 대학생들은 사회비교를 통해 자기향상동기가 충족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 미국 대학생들은 자기평가동기가 충족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이 사회비교의 대상을 서열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삼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향비교나 하향비교와 같은 수직 차원의 비교가 일어나고, 이때 자기향상동기가 우세한 사람은 하향비교보다는 상향비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직적 상향비교가 일어나게 되면 사회비교의 결과로 자기존중감 저하와 부정적 정서 경험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집단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단 속에서 자신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향상동기가 우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하향비교보다는 상향비교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추론되며, 따라서 사회비교의 결과로 자기존중감 저하와 부정적 정서 경험이 수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문제와 가설

본 연구는 자기개념 인식의 방식 및 행복의 내적, 외적 조건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서구인들과 다르다는 선행 연구(박정현, 서은국, 2005)를 바탕으로 하여, 이런 인식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경쟁지향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강화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또한 사회비교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자기 인식의 방식으로서 인간의 내-외적 단서를 고려하는 비중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초기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박정현과 서은국(2005)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내외 단서의 비중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구인들이 내적 단서의 비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은희(2008)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인식에서 내적 단서를 더욱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는 서구인들의 자기인식 방식과 같은 것이다. 이 결과들을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성장하면서 자기 인식 방식에서 점차 외적 단서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연구문제 1에서는 발달 단계가 서로 다른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인식의 방식에서 내외 단서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자기개념 인식에서 내-외 단서를 고려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연령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한, 박정현 등(2005)의 연구결과를 보면 외적 단서의 비중이 높은 대학생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도 외모, 재산, 집안배경 등 외적인 조건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은희(200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어서, 행복의 조건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일류 학력과 좋은 직업을 목표로 삼도록 교육받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아직 청소년기에 진입하지 않은 초등학생, 그리고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취업과 사회진출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 경쟁하는 대학생 집단이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며,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행복에 대한 내-외 조건의 중요도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외적 단서 중심의 자기개념을 형성할수록 행복조건에 대해서도 외적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외적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회비교 또한 이들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비교는 자신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Lyuborsmirsky & Ross, 1997), 개인이 살아가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사회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

회비교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기존중감과 행복감이 낮아지고(Lyuborsmirsky & Ross, 1997), 특히 수직 차원의 대상을 중심으로 상향비교를 할수록 자기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White & Lehman, 2003; 2005). 문화권에 따른 사회비교 현상의 차이를 밝힌 결과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수직 차원의 상향 비교를 많이 한다는 점도 밝혀주었다(Heine 등, 2001).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을 고려해볼 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좋은 성적을 성취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주변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해 수직 차원의 사회비교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입시 환경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 친구나 동료를 비교하는 상황에 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사회비교 정도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가? 또한 사회비교 정도는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있는가? 사회비교 정도가 증가할수록 자기존중감은 저하되는가?

가설 1.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비교를 많이 할 것이다.

가설 2. 행복의 조건으로 외적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사회비교를 많이 할 것이다.

가설 3.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기존중감은 낮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초등학교 5, 6학년 262명과 중학교 2학년 218명, 고등학교 2학년 262명, 대학생 220명으로 총 9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954명의 자료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별, 학년별 응답자 수와 비율은 표 1과 같다.

측정 도구

자기개념 인식에서 내-외 단서의 상대적 비중

사람의 내적, 외적인 단서가 그 사람을 인식하는데 얼마나 고려되는가 하는 자기개념 인식 방식을 측정하고자 박정현과 서은국(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자신 혹은 타인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측면(사회적 지위, 외모 등)과 보이지 않는 측면(생각, 감정 등)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대하여 10점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내적 단서와 외적 단서를 동등하게 고려한다면 “5 : 5”의 비율로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행복조건의 내-외 특성 중요도 평가

사람의 여러 가지 내적, 외적 특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내-외 특성들을 추출하기 위해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서 인간의 내적, 외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기존연구(박정현 등, 2005)를 참조하고 대학생 35명으로부터 자유기술을 받아 항목을 수집한 후, 연구자간의 토론을 거쳐 내적 조건 8개, 외적 조건 8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항목들을 1) 이분척도상의 양자택일형 2) 단일문항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먼저 행복의 내적, 외적 조건을 하나씩 쌍으로 제시하여 두 측면 중 어느 것이 더 행복한 삶에 중요한지 상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후(양자택일형), 외적 조건을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개수, 내적 조건을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개수를 각각 합산하여 두 점수의 차이 값을 산출하였고, 리커트형으로 측정한 내외 조건 16개 항목에 대한 5점 척도상의 응답에 대하여 8문항씩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사회비교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소에 자신을 타인과 얼마나 자주 비교하는지’에 관해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5

표 1. 응답자 구성

	남자	여자	계 (%)
초등학생(5/6학년)	131	129	260 (27.3)
중학생(2학년)	111	105	216 (22.6)
고등학생(2학년)	129	131	260 (27.3)
대학생	106	112	218 (22.8)
계	477	477	954 (100.0)

점 리커트형 척도를 구성하였다. 4개의 문항 내용은 외모, 성적, 집안형편, 부모님의 직업으로 수직적 차원의 비교가 쉽게 일어나는 것들로 구성하였다. 4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703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자기존중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Rosenberg (1979)의 척도를 번역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척도이며 합산 평균하여 자기존중감 점수를 산출하였다. 10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795로 나타났다.

결 과

먼저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자기개념에서 인간의 내-외적 측면을 고려하는 상대적 비중을 10점 척도 상에서 평가한 점수를 네 연령집단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표 2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보이는 부분(외적 단서)과 보이지 않는 부분(내적 단서)의 비중을 4.71 : 5.29, 4.78 : 5.22로 평가하여 내적 단서 중심의 자기인식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등학생은 보이는

측면(5.30)이 보이지 않는 측면(4.70)보다 한 사람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994, p<.01$), 대학생은 보이는 측면(5.08)과 보이지 않는 측면(4.92)이 동등하게 한 사람을 나타낸다고 응답하여($t=.568, p>.05$),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의 결과는 선행연구(박정현, 서은국,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은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으로, 행복한 삶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선정한 16가지 요소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상에서 평가한 값을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네 집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6가지 행복의 내-외 조건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16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 1.0을 기준으로 할 때 추출된 요인의 수는 3개로 나타났다는데, 직교회전(varimax rotation)한 결과 연구자들이 구분한 외적조건 8문항은 1요인(직업, 출세, 큰집, 일류대학, 돈, 외모, 타인의 인정, 집안배경)으로, 내적조건은 각각 2개의 요인(요인2: 가족화목, 웃음과 대화, 평안함, 건강, 주위화합, 요인3: 하고 싶은 일하기, 꿈이루기, 자부심 갖기)으로 구분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57.3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이 개념화한 대로 요인의 수를

표 2. 자기개념의 내-외단서 비중 평균(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초, 중, 고,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F	Post-hoc (Duncan)
보이는 측면 (외적 단서)	4.68 ^a (1.77)	4.80 ^a (1.61)	5.30 ^b (1.66)	5.08 ^c (1.78)	6.262*	a<b, a=c, b=c
보이지 않는 측면 (내적 단서)	5.32 ^a (1.80)	5.20 ^a (1.63)	4.70 ^b (1.67)	4.92 ^c (1.78)	6.360*	a>b, a=c, b=c
t	-2.711**	-1.977*	2.944**	.568	-	

* $p<.05$

2개로 지정하여 직교회전 방식으로 다시 요인 구조(1요인 27.126%, 2요인 23.698%, 총 설명 분석한 결과,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은 2요인 변량 50.824%)를 이루면서 정확히 구분되었다

표 3. 행복한 삶의 내적-외적 조건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요인 2	공통성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	.811		.659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	.766		.590
좋은(큰) 집에서 사는 것	.764		.590
돈이 많은 것	.753		.568
일류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	.702		.563
외모가 잘 생긴(예쁜) 것	.654		.496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586		.473
집안 배경이 좋은 것	.575		.356
가족 간에 늘 웃음과 대화가 있는 것		.759	.579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		.740	.550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737	.548
주위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725	.533
가정이 화목한 것		.678	.460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		.654	.465
몸이 건강한 것		.630	.397
나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490	.305
고유치	4.340	3.792	
설명변량 %	27.126	23.698	
누적설명변량 %	27.126	50.824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872	.813	

주) 요인 점수가 .30 이상인 값만 제시함.

표 4. 행복의 내-외 조건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균(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요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F	post-hoc (Duncan)
내-외 조건 차이값	4.75 ^a (3.81)	4.65 ^a (3.93)	3.45 ^b (4.13)	5.11 ^a (3.20)	8.851*	b<a

주) 차이값은(내적조건합-외적조건합)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값이 클수록 내적조건을 중시하는 것이다.

*p<.001

표 5. 행복에 대한 내외조건 중요도 평가 변량분석: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5점 척도)

	항목	초등학생 (N=259)	중학생 (N=215)	고등학생 (N=260)	대학생 (N=218)	F	post-hoc (Duncan)
내적 조건	가족화목	4.85 ^a (.43)	4.73 ^a (.63)	4.70 ^b (.59)	4.69 ^b (.66)	3.819*	b<a
	주위화합	4.67 (.63)	4.60 (.70)	4.62 (.58)	4.54 (.64)	1.787	-
	평안함	4.62 ^a (.69)	4.56 ^a (.68)	4.35 ^b (.81)	4.47 ^c (.72)	6.352**	b<a, a=c, b=c
	건강	4.62 ^a (.69)	4.56 ^a (.68)	4.35 ^b (.81)	4.47 ^c (.72)	6.352**	b<a, a=c, b=c
	꿈 이루기	4.61 (.71)	4.54 (.79)	4.66 (.59)	4.59 (.66)	1.340	-
	웃음대화	4.61 (.71)	4.53 (.79)	4.66 (.59)	4.59 (.66)	1.340	-
	하고 싶은 일하기	4.44 (.77)	4.55 (.75)	4.59 (.71)	4.61 (.66)	1.199	-
	자신감	3.79 ^a (1.14)	4.12 ^b (1.03)	4.35 ^c (.76)	4.51 ^c (.70)	27.425**	a<c, a=b, b=c
	내적 조건 전체	4.59 (.43)	4.59 (.52)	4.57 (.50)	4.61 (.50)	.219	-
외적 조건	타인의 인정	3.79 ^a (1.03)	3.74 ^a (1.04)	4.14 ^b (.80)	3.96 ^c (.74)	9.922**	a<b a=c, b=c
	집안배경	3.44 ^a (1.19)	3.18 ^b (1.16)	3.46 ^c (.99)	3.32 ^a (.93)	3.261*	b<c a=b, a=c
	직업	3.41 ^a (1.10)	3.52 ^a (.99)	4.08 ^b (.75)	3.78 ^c (.83)	26.205**	a<c<b
	출세	3.41 ^a (1.07)	3.29 ^a (1.04)	3.87 ^b (.86)	3.61 ^c (.85)	16.550**	a<c<b
	돈	3.27 ^a (1.12)	3.60 ^b (1.04)	4.23 ^c (.76)	4.10 ^c (.68)	58.004**	a<b<c
	일류대학	3.26 ^a (1.15)	3.18 ^a (1.14)	3.83 ^b (.91)	3.33 ^a (.83)	20.387**	a<b
	외모	3.23 ^a (1.17)	3.36 ^a (1.05)	3.90 ^b (.88)	3.67 ^c (.79)	23.351**	a<c<b
	좋은(큰)집	2.88 ^a (1.07)	2.97 ^a (1.08)	3.60 ^b (.97)	3.42 ^b (.84)	29.893**	a<b
	외적 조건 전체	3.34 ^a (.80)	3.35 ^a (.81)	3.89 ^b (.61)	3.65 ^c (.55)	34.893**	a<c<b

*p<.05, **p<.001

(표 3). 내적조건 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13, 외적조건 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72로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구분된 행복의 내-외 조건을 쌍으로 제시한 양자택일형 문항에 대해 외적 조건을 선택한 개수, 내적 조건을 선택한 개수를 각각 합산한 후 이 두 개의 차이값을 산출하였다. 네 연령집단의 내-외 조건 차이값에 대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모든 집단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내적 조건이 외적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는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어서, 고등학생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행복한 삶에 중요한 것으로서 외적 조건을 선택한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상대적으로 외적 조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8.851, p<.001$.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외적 조건들을 내적 조건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외 조건 각각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상에서 평가한 값을 네 연령집단에 대하여 변량분석 하였다.

표 5를 보면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내적요소(예: 가정의 화목, 건강, 평안함 등)를 외적요소(예: 돈, 출세, 집안배경 등)에 비해 행복의 조건으로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없다, $F=.219, p>.05$. 하지만, 외적요소에 대해서는 행복의 조건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연령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있다, $F=34.893, p<.001$. 즉, 외적조건 전체에 대해 고등학생이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대학생이 그 다음이며, 초·중학생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조건 개별 항목별로 보면 ‘돈’에 대해서는 초<중<고=대학생의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F=58.004, p<.001$), ‘좋은(큰)집’의 경우는 초=중<대<고등학생 순이며($F=29.893, p<.001$),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의 경우에도 초=중<대<고등학생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F=26.205, p<.001$). 이와 같은 양상은 ‘외모’($F=23.351, p<.001$), ‘출세’($F=16.550, p<.001$)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대부분의 외적 요소들에 대해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일류대학’의 경우 초, 중,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여($F=20.387, p<.001$), 대학 진학을 위해 치열한 입시경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등학생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 점수 측면에서는 행복의 외적 조건들에 대한 중요도 평가점수가 내적 조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모든 집단에서 내적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는 반면, 외적 조건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행복한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개념의 비중으로 외적 단서를 중시하는 정도와 행복의 외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간의 관계를 연령 집단별로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전체적으로 외적 단서 중심의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도 학벌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이 모두 관찰되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외적 자기개념을 가질수록 행복의 조건으로도 외적인 요소들을 중시하는

경향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이다. 사회비교 정도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사회비교 정도와 행복조건에 대한 인식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세부 항목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외모, 성적, 가정형편,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에 대하여 평소 친구와 얼마나 자주 비교하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이 네 가지는 서열화가 가능하여 수직

비교가 용이하게 일어나는 항목들이다. 네 문항의 평균으로 볼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722, p<.01$.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학년(연령), 행복의 외적조건 중요도, 사회비교, 자기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8), 행복한 삶을 위해 외적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사회비교가 높고($r=.218, p<.01$),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기존중감은

표 6. 연령 집단별 외적 자기개념과 행복의 외적조건 중요도 간 상관관계

	행복의 외적 요소 중요도				
	초등학생 (N=258)	중학생 (N=216)	고등학생 (N=260)	대학생 (N=218)	전체 (N=950)
외적단서 중심의 자기개념	.137*	.298**	.191**	.141*	.199**

* $p<.05$, ** $p<.01$

표 7. 초, 중, 고, 대학생의 사회비교 평균(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F	Post-hoc (Duncan)
사회비교	2.61 (.82) ^a	2.68 (.63) ^a	3.05 (.74) ^b	2.96 (.75) ^b	18.722*	a<b

* $p<.01$, ** $p<.001$

표 8. 연령, 행복의 외적 조건, 사회비교, 자기존중감 간 상관관계 (N=950)

	학년(연령)	행복의 외적 조건 중요도	사회비교	자기존중감
학년(연령)	1			
행복의 외적 조건 중요도	.013	1		
사회비교	.201*	.218*	1	
자기존중감	.165*	-.137*	-.246*	1

* $p<.01$

낮게 나타났다($r=-.246, p<.01$). 그러나 학년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는 정적($r=.165, p<.01$)인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회비교를 많이 하며 사회비교를 많

이 할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 집단별로 각각 행복의 외적 조건 중요도, 사회비교,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고(표 9), 자기존중감

표 9. 연령(학년) 집단별 행복의 외적 조건, 사회비교, 자기존중감 간 상관관계

	행복의 외적조건 중요도	사회비교	자기 존중감	행복의 외적조건 중요도	사회비교	자기 존중감
외적조건 중요도	1	.337*	-.221*	1	.218*	-.124
사회비교	.412*	1	-.357*	.306*	1	-.275*
자기존중감	-.197*	-.427*	1	.067	-.003	1

* $p<.01$

주) 좌 대각선 아래: 초등학교(N=259), 위: 중학생(N=216).

우 대각선 아래: 고등학교(N=260), 위: 대학생(N=218)

표 10. 사회비교, 행복의 내외조건 중요도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회귀분석

	예언변인	Beta	R	R ²	F
초등학교 (N=257)	행복의 내적조건	.165**			
	행복의 외적조건	-.043	.458	.209	22.326**
	사회비교	-.404**			
중학생 (N=215)	행복의 내적조건	.087			
	행복의 외적조건	-.125*	.382	.146	12.027**
	사회비교	-.308**			
대학생 (N=218)	행복의 내적조건	.303**			
	행복의 외적조건	-.127*	.404	.163	13.904**
	사회비교	-.215**			
전체 (N=950)	행복의 내적조건	.131**			
	행복의 외적조건	-.032	.278	.077	26.343**
	사회비교	-.229**			

* $p<.05$, ** $p<.001$

주) 고등학생집단의 경우,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아 회귀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표9참조).

에 대한 내외조건 중요도와 사회비교의 영향력을 연령집단별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9를 보면 행복의 외적조건을 중시할수록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경향성은 초등학생($r=.412, p<.01$), 중학생($r=.337, p<.01$), 고등학생($r=.306, p<.01$), 대학생($r=.218, p<.01$)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며 그 관련성의 정도는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아지는데, 단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이런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각 연령집단별로 사회비교와 행복의 내외조건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자기존중감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표 10),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비교가 자기존중감을 설명하는 회귀계수의 크기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의 내외 조건이 자기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에서도 연령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생 집단과 초등학생 집단은 내적조건이 자기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중학생 집단은 외적조건이 자기존중감을 부적(-)으로 예언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행복의 내적조건을 중시하는 정도는 자기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사회비교는 자기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의 크기는 사회비교($\text{Beta}=-.229, p<.001$)가 내적조건($\text{Beta}=.131, p<.0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가 지지되었고,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개인이 행복감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기개념 인식,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과 자신을 다른 사

람과 비교하는 사회비교에 주목하여, 행복조건에 대한 인식과 사회비교 정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사회비교 정도에 따라 자기존중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954명을 대상으로 자기개념과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 사회비교 정도를 비교하고, 또한 자기존중감과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개념에서 내-외 단서의 비중을 연령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내적단서를 더 비중있게 생각하는 반면, 대학생은 내외 단서의 비중을 동일하게 인식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외적단서들이 한 개인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한 개인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내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서구인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과 유사한 모습이다. 반면, 고등학생들은 외적단서가 내적단서보다 한 사람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외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에 대한 비중을 거의 동등하게 인식하여 자기개념에서 내외 단서의 비중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점차 개인의 사회적이고 외적인 요소들, 예컨대 학벌, 직업, 돈, 집안배경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게 되고, 성인기(대학생)에 접어들면 내적, 외적 요소들에 대해 다소 균형 잡힌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네 연령 집단은 서로 다른 응답자들로서

시계열적 비교가 불가능한 횡단 자료이지만, 발달 시기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서구인들이 개인의 내적 특성을 외적 특성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본질로 생각한다는 선행 연구(예, Anderson & Ross, 1984)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개인들이 선천적으로 인간의 외적 특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성장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점차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이고 외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쪽으로 변화를 겪는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행복한 삶에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네 연령 집단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돈(재산), 일류대학, 직업 등의 물질적이고 외적인 요소보다 가족의 화목, 마음의 편안함, 자부심 등 심리적이고 내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고등학생 집단은 외적 요소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외적 자기개념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행복의 조건도 외적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행복의 조건 개별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재산(돈), 일류대학,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출세, 멋진 외모 등의 외적인 요소들이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일류대학, 경제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대해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행복요인에 대한 전경숙과 정태연(2009)의 연구에서 가족관계, 경제력, 외모가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모든 연령 집단에서 내적인 조건들이 외적 조건보다 행복한 삶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세부 조건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면 성장함에 따라서 경제력이나 학벌, 직업 등 외적인 조건들의 중요성을 점차 높게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비교 정도를 네 연령 집단 간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대상으로 성적, 가정형편, 외모, 부모의 직업을 선정하였는데, 이 네 가지는 비교적 서열화가 쉽게 일어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사회비교 정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타인과 자신의 우월성 여부에 관해 수직 비교가 일어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사회비교 정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높다는 것은 성장함에 따라서 서열화가 쉽게 일어나는 수직비교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기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존중감과 사회비교 간의 상관관계가 $r = -.246(p < .01)$, 또한 연령과 사회비교 간의 상관관계가 $r = .201(p < .01)$ 로, 아동기에서 청소년, 그리고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자신과 타인을 성적이나 가정형편, 외모 등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조건들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사회의 경쟁지향적 환경으로 인해 성장함에 따라 점차 사회비교 경향이 강화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수직 차원에서 우열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외적조건들에 더 집중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는 서열화가 쉽게 일어나는 성적, 외모, 가정형편, 부모의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주위사람(친구)과 비교하는지 질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사회비교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았다. 즉, 자신보다 못한 대상과 하향비교를 하는지, 혹은 자신보다 나은 대상과 상향비교 하는지에 따라 사회비교의 정서적, 심리적 결과는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음으로서 응답자들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수직비교가 쉽게 일어나는 성적, 경제형편과 같은 측면들에 대하여 상향비교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의 부적 상관계수의 크기는 초등학교와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네 연령집단에서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연령이 높은 응답자 집단일수록 상향비교 뿐 아니라 하향비교나 유사비교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성장함에 따라 자신을 방어하고 고양시키고자 하는 자기조절 기능이 발달하여, 사회비교 과정에서 자기평가나 자기고양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비교의 방향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기존중감과 사회비교 간의 부적 상관성이 약화된 원인을 직접 밝힐 수는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비교의 대상과 방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기존중감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Rosenberg, 1979; 황유진, 2010)에서 밝혀진 것과 경향성이 일치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사회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존중감이 낮은 것인지, 혹은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타인과 자신을 더 상향비교를 빈번히 하기 때문인지와 같은 인과적 해석에 대해서는 현재의 결과로서는 결론내리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내외 조건에 대해 하나의 문항풀(item pool)을 구성하여 모든 연령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즉,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자유기술식 예비조사를 하여 행복의 조건을 수집하고, 청소년과 대학생을 각각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이 밝힌 행복 조건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행복의 내외 조건을 16가지로 구성하였으나, 발달 단계가 다른 네 연령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에는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네 집단이 행복의 조건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령 집단 간 있을 수 있는 행복 조건의 내용적 차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는 발달 단계가 다른 네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한 연령집단이 발달 과정상에 나타나는 변화를 종단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였던 자기개념의 발달 단계별 변화, 사회비교 경향의 발

달적 차이 등을 직접 밝히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횡단 자료의 결과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였으나, 여전히 본 연구의 결과가 서로 다른 네 연령 집단이 보이는 차이를 발달 과정상에 나타나는 종단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시각이 잔존하기에, 다시 한 번 제한점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77-100.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은희 (2008). 초등학생의 내-외적 자기개념과 자기존중감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9(4), 19-31.
- 장은영 (2009). 사회비교와 주관안녕: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57-169.
- 장은영, 한덕웅 (2002).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성공/실패에 따른 자기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5), 109-123.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사회비교 경향성, 비합리적 신념과 성취목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4), 785-805.
- 한규석 (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덕웅 (1999). 사회비교의 목표와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11-329.
- 한덕웅 (2006). 한국문화에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 요인들.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45-79.
- 한덕웅, 장은영 (2000).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성공/실패에 따른 자기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5), 109-123.
- 황유진 (2010). 초기 청소년의 자존감 저하현상과 사회비교 경향성 및 공격 자의식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진 (2005). 사회비교 빈도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2010, 5, 5). 어린이 행복지수, OECD 國 중 꼴찌.
- Alice, M. D., Klotz, M. L., Breitenbecher, D.L., Yurak, T. J., & Vredenberg, D. S. (1995). Personal contact, individuation, and the better-

- than-averag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04-825.
- Anderson, S. M., & Ross, L. (1984). Self-knowledge and social inference: I: The impact of cognitive/affective and behavioral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280-293.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New York: Taylor & Francis.
- Carver, C., & Sheier, M. F. (1986). Analyzing shyness: A specific application of broader self-regulatory principles. In W. H. Johns, J. M., Cheek, & S. R. Briggs (Eds.) *Shyness: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 pp.173-185. New York: Plenum.
- Cousins, S. D. (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Damon, W., & Hart, D. (1982). The development of self-understanding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4), 841-864.
- Damon, W., & Hart, D. (1988). *Self-understand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Lucas, R. E. (2000). Subjective emotional well-being. In M. Lewis & J. M. Haviland-Jones (Ed.), *Handbook of Emotions*. (pp.325-337). New York: Guilford.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Heine, S. J., & Lehman, D. R.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 - 925.
- Heuvel, H. V., Tellegen, G., & Koomen, W. (1992). Cultural differences in the us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 children's self-understand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 353-362.
- Heine, S. J. (2001). Self as cultural product: An examination of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69(6), 881-906.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ne, T., Ide, E., Lueng, C., & Matsumoto, H.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 - 615.
- Lyubor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1157.
- Locke, K. D. (2005). Connecting the horizontal dimension of social comparison with self-worth and self-confi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795-803.
- Locke, K. D., & Nekich, J. (2000). Agency and communion in naturalistic social comparis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864 - 874.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The Free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yan, R. M., Chirkov, V. D., Little, T. D., Sheldon, K. M., Timoshina, E., & Deci, E. L. (1999). The American Dream in Russia: Extrinsic aspirations and well-being in two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509-1524.
- Sheldon, K. M., & Elliot, A. J. (1999). Goal striving, need-satisfaction, and longitudinal well-being: The self-concord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482-497.
- Taylor, S. E., Wayment, H. A., & Collins, M. A. (1993). *Positive illusions and affect regulation*. In D. M. Wegner & D. W. Pennebaker (Eds.), *Handbook of mental control*, pp.325-343.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aylor, S. E., Wayment, H. A., & Carrillo, M. (1996).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3, pp.3-27. New York: Guilford.
- Updegraff, J. A., & Suh, E. M. (2005). *Happiness is a warm and abstract thought: self-construal abstract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oledo, OH.
- Wheeler, L.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In J. Suls & L. Wheeler (Ed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Research*. (pp.141-158). New York: Plenum.
- White, K., & Lehman D. R. (2003).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conference*, Los Angeles, CA.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232-242.
- Suh, E. M. (2000). Self, the hyphen between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63-86. Cambridge, MA: MIT Press.
- Wood, J. V., & Lockwood, P. (1999). Social comparisons in dysphoric and low self-esteem people. In R. Kowalski & M. Leary, Editors (1999). *The social psychology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terfaces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pp.97 - 135. APA, Washington DC.

논문투고일 : 2010. 06. 30
1 차심사일 : 2010. 07. 07
2 차심사일 : 2010. 08. 26
게재확정일 : 2010. 10. 15

Relationship among Recognition of Self-view, Conditions for Happiness, Social Comparison, and Self-esteem: Focused on Age Differences

Jonghan Yi

Eun-A Park

Dept. of Psychology, Daegu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have demonstrated that the external factors (ex., money, appearance) are more influential in Easterners' self-views and conditions for happiness than those of Westerne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current study examined whether 1) children and adolescents acquired these tendency as they grew up and 2) this tendency had relevance with social comparison. Total 954 students (260 elementary, 216 middle school, 260 high school and 218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regarded the internal factors (ex., thinking, feeling) as more important. But high school students considered the external factors as more important,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college students. Also, the results revealed th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regarded the harmony of family and peace of mind as more important conditions for happiness. These results contrasted with preference for better educational backgrounds, better occupation, and money i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age and social comparison tendency had positive relation with external self-concepts and negative relation with self-esteem. Especially, high school students showed strongest external self-concepts and social comparison tendency among four age groups. They also showed strongest preference for external conditions for happiness, but their self-esteem was the lowest. This might reflect fierce competition for college education in Korea, and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have demonstrated that adolescents developed a tendency to prefer external factors to internal factors as they grew up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Key words: : *self-view, social comparison, self-esteem, conditions for happiness*